

12·12 직후 전두환 축출하려 했던 해·공군 고위직들

5·18땀 입장 바뀌어 신군부에 적극 동조

5·18기록관 '팀 서록 기증 미국정부 기밀해제문서 완역본' 공개

靑 참모진과 전두환 제거 논의...주한미대사 신군부 반대파 접촉도 미국, 전두환 실권자 인지...한반도 안보 우려해 신군부 세력 인정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직후 일부 해군·공군 고위 장교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해병대를 동원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파벌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은 5개월 뒤인 5·18민주화운동 기간에는 입장을 바꿔 신군부에 적극 동조했다. 당시 미국대사관측에서도 전두환 신군부의 반대파와 접촉하는 등 '줄타기 행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개한 '팀 서록 기자 기증 미국정부 기밀해제문서 완역본'에 따르면 한국군과 한국 정부 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권력 기반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 공군과 해군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에 대한 사임 압력'이라고 명명된 이 문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측 정보원이 1980년 1월 4일 첩보를 입수해 같은달 8일 미국 국방정보국에 보고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공군·해군의 일부 고위 멤버들이 1979년 12월 13일 육군의 권력 장악 사건을 주도한 전두환 소장이 사임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권력이 억제되지 않으면 그와 그의 파벌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당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이들은 전두환이 계속해서 최규하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해병대를 동원해 그 파벌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것이다.

이 정보원은 '보안사가 한국육군 영관급 장교들에게 12·12 사건의 목적을 설명했으나 기대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1980년 1월5일 수집한 첩보에서는 공군·해군 고위장교들이 전 사령관의 사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 보고를 들은 전 사령관은 극도로 심기가 불편했다고 나와 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윌리엄 클라이스틴도 신군부의 반대파들과 접촉하며 전 사령관을 견제했지만, 반대파들의 군 동원 실효와 미국에 대한 충성에 의구심을 품고 접촉을 중단했다.

해군·공군 내 반대파와는 달리 참모 총장들은 신군부에 적극 동조하며 5·18을 통한 전 사령관의 정권 전탈에 협력한다. 지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1980년 5월17일 오전 11시40분 국방부에서 열린 비상계엄 확대를 논의하는 자

리에서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은 "월남(베트남)과 흡사하며 초기 단계이다. 월남은 학생들이 공산당이였다"고 발언했다. 또 6월 초 열린 공군지휘관회의에서는 "일부 학생들과 불순분자들에 의해 광주 소요사태가 발생했다"고 훈시했다.

해군은 1980년 5월17일 해병 1사단을 마산으로 이동시켜 광주 투입 대기를 지시하고 했다.

나아가 5·18기록관장은 "미국 정부는 12·12부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5·18 때 시위대가 무장하자 한반도 안보를 우려한 미국 정부는 신군부의 세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박상기 법무장관 광주고검·지검 방문 "인권 존중·약자 배려하는 검찰돼 달라"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 간담회를 갖고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무안 출신인 박 장관은 이날 고향인 광주·전남과 각별한 인연 등을 소개한 뒤 "기계적인 법 적용을 지양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광주고등·지방검찰청으로 거듭날 수

직원격려를 위해 내부 행사로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한 박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 이어 검사 등과 개별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당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BMW 'EGR 결함' 자료 분석 착수

차주 120명은 민사소송 제기

BMW 차량 화재에 대한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이주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BMW 화재 모임 등이 이 회사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문건은 BMW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이 장치의 결함을 다룬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근 차량 화재 피해자인 고소인 이광덕 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리콜 대상인 BMW 520d 모델 2만1000대 가운데 2100여 대가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점검 대상 차량 목록을 이날 중 넘겨주면 교통경찰관이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BMW 화재모임을 대리하는 하중선 변호사는 이날 "화재 피해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차가 리콜 대상인 1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며 "이와 별도로 화재 피해자 4명은 이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화재 피해자들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도로에 쏟아진 철제 고정핀에 광주서 차량 44대 타이어 파손

도로에 쏟아진 철제 고정핀 때문에 자동차 44대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구 무진대로를 달리던 자동차 44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이들

자동차는 도로에 떨어진 거푸집 연결 고정핀을 밟았다. 길이 8cm가량의 고정핀은 마모(66)씨가 몰던 2.5t 트럭 화물칸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핀을 담은 자루의 입구 매듭이 풀리면서 도로에 쏟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현황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마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5·18기념식 시민단체 사찰 의혹' 관련 경찰 5명 징계

광주지방경찰청이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을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광주청 보안과는 관련 계획서에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없는 '인적위해단체'라는 용어를 적시해 혼선을 초래하고 보안수사2대는 동원명령서에서 '인적위해단체 동향파악'이라고 기재해 경찰이 특정 단체를 불법사찰했다는 오해를 샀다"며 "보안과 경찰관 5명에게 주의 및 경찰청장 서면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

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 경호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찰 목적으로 특정 단체를 선정·관리한 사실은 없다"며 "불법사찰"로 의심할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광주청 보안수사2대가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군산서 고아 소년 2명 성추행 미군 병사 15년형 선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소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군사법원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일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40대, 출동 경찰에 폭력 휘둘러 구속될 처지



○...음주상태에서 도로 위 적치물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 질 등을 하는 바람에 구속될 처지.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19일 밤 9시45분께 광주시 동구 금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적치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서성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입건돼 순간 겁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신 학 과	수 시	정 시	인원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에설치료학과(D.C.S.)	15	
		통합에설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